

고려 대장경 판전의 건축학적 고찰

이대형

건원산업건축

an architectural consideration on the tripitaka koreana library

해인사의 고려 대장경 경판을 600여 년간 온전하게 보존하여 온 수다라장과 법보전 두 판전에 대한 실측보고서¹⁾ 자료와 장기간에 걸친 현장 방문 조사 및 관찰 결과²⁾를 종합하여 판전의 현황과 그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가야산 해인사 경내 최후위의 경사면을 절개하여 마련한 서남서향 대지에 앞뒤로 배치된 수다라장과 법보전은 측면 2 칸 정면 15 칸이며, 전후 좌우 사방의 각 지등사이 벽 아래위로 크기가 다른 살창이 설치되어 있다. 위가 크고 아래가 작은 후면 살창의 총면적은 위가 작고 아래가 큰 다른 삼면 살창의 총면적과 같다. 판전의 방위와 이런 살창의 배치는 태양광의 입사와 원활한 환기를 고려한 설계로 보인다.

수다라장과 법보전은 크기가 같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다라장이 조금 더 높고 폭도 넓다. 수다라장의 잘 다듬어진 내외 기둥에 견주어 법보전의 기둥들은 너무 굵거나 가늘고 휘었거나 짧아서 가다듬거나 덧대거나 이어서 정리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판전을 건축할 때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판전의 살창과 부재의 실태를 자세하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수다라장의 중앙 통로 확장으로 중앙 판가가 변형되었고 법보전의 불당 설치로 전면 살창의 구조가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¹⁾ (주) 옛터 건축사 사무소, 해인사 장경판전 실측조사보고서, 해인사,

2002

- ²⁾ 이태녕 편, 해인사 장경판전 신평가 철거에 따른 보존 안전성 조사
고려대장경연구소, 2004